

결 재	계	부장	교감	교장

<h1>보도자료</h1> <p>2018. 11. 22.</p>	 <h2>상 해 한국 학교</h2> <p>SHANGHAI KOREAN SCHOOL</p>
	<p>중등중국어교육부 ☎ 6493-9552</p>

자료문의: 노 민 경 ☎ 6493-9552 부장: 서 슬 기 담당: 노 민 경

제목 : 상해한국학교 제1회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성공적으로 개최

지난 11월 15일 상해한국학교에서 제1회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진행되었다. 중등중국어교육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학생들 스스로 중국어 문화권의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중국어로 발표함으로써 사회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력에 기반한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오전은 고등부, 오후는 중등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신현명 교장선생님은 대회 격려사를 통해 미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과 더불어 중국 사회,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미래 한중양국 관계에서 상해한국학교 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등부 전체 사회는 이정민, 김연희 학생(10학년)이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등장하여 유창한 중국어로 호흡을 맞추어 가며 매끄럽게 진행했다. 고등부에서는 총 19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중국의 8대 요리 체계를 비롯하여 중국의 인민폐, 중국의 전자상거래, 한국과 중국문화의 차이, 중국과 한국의 해양왕, 중국의 브랜드 네이밍 등 다양한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경합을 벌였다. 대회 중간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오하은, 김성경 학생(11학년)이 등장하여 드라마 패러디, 중국어 잔말놀이 등을 활용하여 쉬어가는 코너를 진행하여 대회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치열한 프레젠테이션 경합 결과 고등부 최우수상은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마윈과 알리바바에 대해 분석한 배준일 학생(10학년)과 중국 상해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삶을 주제로 본인의 생각과 더불어 한국인의 역사적 발자취를 담담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소개한 장원진 학생(11학년)이 획득하였다.

중등부 전체 사회는 이윤수, 이혜나 학생(11학년)이 밝고 귀여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전체 순서를 유창한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총 8명의 학생이 무대에 올라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유방과 항우, 중국의 듣기 앱, 중국의 도서 소개 등 다양한 주제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낭랑한 목소리와 논리적인 구성으로 샤오미에 관해 소개한 김현지 학생(9학년)이 중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송승호 학생(8학년)은 '중국제품을 알아보지 말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으나 우렁찬 목소리와 힘 있는 제스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표를 마쳐 큰 박수를 받았다. 또 중간에 신예원, 박서윤 학생(8학년)이 다양한 퀴즈와 중국어 잔말놀이 코너를 통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남유리 학생(8학년)의 선창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참가학생과 관람학생 모두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즐기는 모습이 돋보였다.

대회 내내 최선을 다해 무대를 빛낸 참가 학생들과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발표를 관람한 학생들의 태도가 매우 훌륭했으며 성공적인 제1회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통해 상해한국학교 학생들은 중국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주제에 관해 학우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 리더의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2018. 11. 22.
상해한국학교장